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63~64쪽; 또한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47쪽)

에베소서 1:3~12. 하나님은 전세에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특정 책임과 축복들을 받을 충실했한 자녀들을 예임하셨다. 예임된 부름을 완수하고 약속된 축복들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충실히 생활해야 한다.(15~20분)

천이나 이불보를 높이 들거나 천장에서 늘어뜨린다. 학생들에게 그 천이 전세와 현세를 분리하는 망각의 휘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휘장을 통하여 전세에서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생각해보게 한다. 그들 자신에 관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질문하고 또 그들의 생각 몇 가지를 나누게 한다. 비록 우리가 전세에서의 개별적인 존재에 관하여 상세하게 많은 사항들을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세 명의 학생들에게 다음 성구를 크게 읽고 또 각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학생들을 위해 요약해 주도록 부탁한다. 예레미야 1:4~5; 사도행전 17:24, 26; 아브라함서 3:23.

칠판에 예임이라고 적는다. 학생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권유한다. 이 단어를 한자씩 분리하여 예(fores)와 임(ordain)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간략하게 토론을 한 후에, “필멸의 생애 동안에 어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용감한 영의 자녀들 가운데서 택하시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려준다.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예임이 되어 수행해야 하는 사명의 종류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위에서 세 학생이 읽은 성구를 상기시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이 세상의 주민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열렸던 전국 회의에서 그 목적을 위해 성임받았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서 이 목적을 위해 성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63쪽)

에베소서 1장 1~12절에서 구절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한다. 여러분은 다음 글과 질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1절 바울이 누구에게 서한을 썼는지를 주목한다. 복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이미 가르쳐졌는가? (성도로서 그들은 기초적인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울의 모든 서한이 교회 회원들을 위해 쓰여졌음을 여기서 강조한다.

2~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 관하여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4절 어떤 표현이 예임을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 되도록 예임되었는가?

5. 11절 예정되었다는 것의 정의에 주목한다. 만일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어떠한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되었는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충실히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임된 부름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그들을 데려다 놓으실 것이라고 증거한다.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다음 간증과 권고로 끝맺는다.

“아브라함이 묘사했듯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수천 명의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밤 이 큰 건물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 저는 주님께서 세계 역사상 이 어려운 시기에 강하고 용감하도록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특별한 영들을 보내 주셨다고 믿습니다. ...”

“저는 온 마음을 다해, ... 여러분이 ... 합당하고 진실하게 되기를 당부합니다.”(Conference Report, 1995년 9~10월,

에베소서 2:1~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25~30분)

-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 그 요소들 가운데서 사람이 가져온 요소는 무엇인가?
- 구주로 말미암아 어떤 요소를 얻을 수가 있는가?

구원의 모든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되었다. 우리는 구주가 없이는 영생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구주께서 마련하신 도움을 묘사한 단어를 찾아보면서 에베소서 2장 4~6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나타난 핵심 단어를 찾아보면서 5, 7~8절을 읽는다.

“은혜”的 정의를 말해 주고, 은혜의 요소를 칠판에 열거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은혜의 충만한 유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2장 8~9절을 읽고 은혜가 은사임을 강조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마련하지 못할 은사들을 마련하셨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가?
- 구주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다른 어떤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힐라맨서 14장 13절을 읽고 또 이 구절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비교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물론경은 신앙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점을 가르쳐 주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정해 주신 선한 행함에 대해 토론한다.

구주께서는 매일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일 그분의 손길을 인식함으로써 그분에게 감사를 표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을 부름으로써 끝맺는다.